평화당 정동영 대표 취임 100일

#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선도 성과"

**현장정치 통한 소통 강화**
**한반도 평화 제도화**
**부동산 정책 대안 제시**
**호남 대안정당 존재감 과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가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통과 협조없다"고 강조하며, 올해 연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지난 100일간 '민주적 평화주의'라는 확고한 가치를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이 함께 공유하며 당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 확고한 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수정당의 한계를 딛고 한국 정치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당원 모집운동 등을 통해서 당세 확장과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겠다"며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과 총선 승리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취임 100일 성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주도 ▲한반도 평화 제도화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 ▲현장정치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산 반영 등 호남에서 대안 정당으로의 존재감 과시 등 5대 성과를 꼽았다.

우선 정동영 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변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전교조 법외노조,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고 현장, 화성동탄 아파트 건설현장, 군산GM공장 등을 방문했다.

또한 정 대표는 민생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실외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두번째로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슈를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연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해왔으며, 참여연대와 민변 등 5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공동상황실 설치를 주도한 것은 물론,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대 양당을 압박하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선도해왔다.

세 번째로 정동영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교류 확대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통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정동영 대표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불평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혁 등 부동산 개혁정책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라는 초강수를 통해서 김현미 장관에게 내년 1월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결정을 받아내고, 지난 10년간 법인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소유 편중 실태를 밝혀낸 것은 물론, 서울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실태 등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다섯 번째로 정 대표는 호남 원내 1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기간 전북 당원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전액 제외되자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을 발표하자 "새만금 국제업무용지에 태양광을 깔겠다는 것은 새만금의 비전을 포기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군산조선소와 군산GM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첨단 자동차 생산시설과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전략거점화 등 전북의 산업 발전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성 기자

**손 맞잡은 독일-프랑스 정상** 앙겔라 메르켈 독이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파리에서 열린 파리평화포럼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양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적대국이었다.

# 문 대통령, 아세안 · APEC 정상회의 준비 매진

**오늘부터 3박4일간 싱가포르서 한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APEC… 동남아 관계 증진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정을 비우고 다음 날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 순방 구상에 집중했다.

이번 순방은 정부의 핵심 기조인 포용국가를 역내에 천명하고, 경제적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순방은 4개 이상의 다자회의와 러시아, 중국, 호주 등과의 양자회담 등이 빠듯하게 예정돼 있다. 평소 '완벽주의자'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회의 자료나 모두 발언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성격으로 알려진 만큼, 준비된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읽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께 주재하던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순방 준비에 오롯이 집중했다. 다만 매주 월요일마다 갖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은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13~16일 3박4일 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7~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다자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설파하고 경제 이슈와 함께 아세안 및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게 목표다.

특히 포용국가를 실현할 '사람 중심의 상생 번영을 통한 평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3P'(People·Prosperity·Peace) 비전에 대한 상세한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의 추동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세안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활성화 해 경제적 다변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중국 등에 의존하던 구도를 탈피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보폭을 넓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릴레이로 예정된 양자회담에서 낼 메시지 구상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정에는 러시아·중국·호주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APEC 개최지인 파푸아뉴기니·라오스와의 회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지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공군 첫 공중급유기 한국에 도착

**A330 MRTT 4대 중 1대 김해기지 착륙 실전 배치**
**적재 연료량 111t… 주력전투기 F-15K에 급유 가능**

공군 첫 공중급유기가 한국에 도착했다.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되면 주력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늘어나면서 독도와 이어도 등에 대한 수호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오늘 오후 2시 김해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공중급유기 1호기는 1개월여의 수락검사 뒤 다음 달 전력화될 예정이다. 수락검사를 통해 시스템 구성, 정비, 항공, 군수 분야 등 군의 품질요구조건을 확인한다.

공군은 이 과정에서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 전투기에 실제 공중급유를 실시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에 앞서 조종사와 정비사, 급유 통제사를 선발, 사전교육을 마쳤다.

군은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어버스D&S의 A330 MRTT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1호기가 도착한 뒤 내년까지 3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A330 MRTT 기종은 에어버스 A330-200 여객기 기체를 개량해 만든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길이 58.8m에 전폭은 60m이며, 동체 폭만 해도 5.6m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다.

적재 연료량은 111t에 달해 F-15K 전투기의 연료가 절반 남았을 때 22대에 연료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중급유기는 미사일 회피 능력과 90t 가량의 연료와 함께 300명의 병력, 45t의 화물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은 물론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되는 차기 전투기인 F-35A도 급유가 가능하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공군의 공중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F-15K의 경우 독도와 이어도 작전임무 가능 시간 늘어난다. 연료 대신 추가 무장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전투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